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5월

선교편지 제 16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위도 7도에 위치한 까닭에, 일년 내내 더위와 함께 지내야 하지만, 지난 3개월여간 'Ting-Ulan' (Rainy Season)을 지나, 지금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Ting-Init' (Hot Season)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동남아 지역 전체가 이상 기온의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 이곳도 이른 아침부터 40°C (104°F)가 넘기 시작하여, 한 낮에는 거의 45°C (113°F)에 이를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지만, 비 오듯이 쏟아지는 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운전을 하려면 평소보다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운전 도중에 차가 정지하기도 하고, 정체 구간에서 에어컨의 전력 과소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도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고, 그 어느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 계절 속에 살아 왔던 저희들에게는 이곳의 4월 'Ting-Init'도 생소하지만, 전체 국민의 85 퍼센트가 가톨릭 신자인 국가에서 지나는 4월의 '가톨릭' 절기도 매우 생소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가톨릭 예식에 따라 영세와 세례명을 받게 되고, 일평생 가톨릭 절기를 지키며 삶을 영위하다가, 임종시에 가톨릭 예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이 가톨릭 신자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주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가톨릭 신자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실한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매일 매일 변화를 이루어 가는 신자가 아니라, 종교와 토속 전통이 어우러진 '절기 의식과 행사'가 일상인 삶 속에서 본인이 신실한 신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의 85%가 가톨릭 신자라면, 얼마나 많은 가톨릭 교회가 곳곳마다 있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주 예배에 참석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주변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매주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본인이 가톨릭 신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4월을 'Month of the Holy Eucharist'라고 부르는데, 유카리스트 (Eucharist)는 기독교의 '성만찬' 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듯하면서 매우 다른 가톨릭의 '성체 성사'를 의미합니다. 즉, 4월은 예수님의 성만찬, 고난, 십자가에서 돌아 가심, 부활을 기념하며, 매우 특별하게 거의 온 국민이 가톨릭 절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4월 1일의 'Lazarus Saturday'부터 시작하여, 4월 2일 주일은 'Parm Sunday', 그리고 4월 3일부터 'Holy Week' 이 시작되어 6일 'Maundy Thursday', 7일 'Good Friday', 8일 'Black Saturday'를 지나, 마침내 4월 9일 'Easter Sunday' 로 연결됩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공서, 학교, 상점, 식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각 날들마다 가톨릭과 전통이 혼합된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절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Good Friday'의 모습은 마치 어린이 성경 이야기 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삽화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 마다, 마을 마다, 가시관을 쓴 예수님 모습의 남성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고, 그 뒤를 많은 주민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병정의 모습을 한 청년들이 실제로 채찍을 휘두르며 고통을 더 하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십자가 행진 중에 곳곳마다 'The Station of the Cross'를 만들어 놓고, 각



Station 마다 특별한 의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 남성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Good Friday' 절기의 절정을 이루게 합니다. 놀랍게도 이번 절기에 전국에서 8명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 신자의 손과 발에 실제로 '못'을 박았다는 현지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이 되면,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생각과 달리 아침 일찍부터 온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주민 전체가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인근 해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바닷물 속에 들어 가서, 호흡을 멈추고 잠시 동안이지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죽음을 체험하고, 숨을 최대한 참다가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와 거친 호흡을 다시 쉬는 것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주일은 모든 해변이 가장 붐비는 날이기도 하고, 교회가 텅텅 비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대장정의 가톨릭 전통의 Holy Week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6)**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이번 부활 주일을 매우 뜻 깊게 보냈습니다. 특히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2년 전 교회 창립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부활 주일에 감격적인 첫 번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 성찬식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성찬 예식'과 가톨릭 문화권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어렵듯이 알고 있고, 경험한 가톨릭의 '성체 성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찬식에 앞서 성경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톨릭의 '성체 성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이것은 내 살이고 피다' (마 26:26~28) 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소위 '화체설' (Transubstantiation)을 믿습니다. 즉, 이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사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여,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내 몸 속에 실제로 흐르고, 또한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 보다 그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 자체를 매우 신성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일으킬 신비한 경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성찬에 대한 초기 종교개혁가들의 다양한 해석의 차이로 지금의 교파가 나뉘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 (눅 22:19) 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유익과 능력은 '떡과 포도주' 자체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또한 믿음으로써 성찬을 받는 자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라'고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언약에 구속된 자들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 인해 예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영광스러운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전하고 성찬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가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오랜 토속 종교와 어우러져 성경과 거리가 너무 먼 모습 속에 사는 이곳 이야말로 '여리고 성'과 같이 단단하게 닫혀진 복음의 불모지 임을 4월을 지나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비록 무력하게 보이지만, 오늘도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는 기도로 선교지를 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이곳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며, 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 9:15)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디고스 지역의 세 번째 교회 개척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